

지지율 하락 주춤... '더민주' 호남 민심잡기

거취 고민 광주·전남 의원들 결행 대신 속고

24일 광주서 영업인사 강연 '더불어 콘퍼런스' 개최

호남에서 추락을 거듭하던 지지율이 진 정세를 보이면서 더불어민주당 측이 호남 민심 수습에 나서고 있다.

더민주 김성곤 전남도당 위원장, 강기정·신정훈 의원은 18일 광주 한 식당에서 지역 언론인들과 만나 당 안팎의 상황을 공유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불참한 우윤근 의원까지 포함해 자신들을 '사(四)수파'(일찌감치 당 잔류를 확정한 광주·전남 의원 4명)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참석한 의원들은 "일부 여론조사 결과가 좀 좋아졌다고 하니 중앙당에서 반전된 것으로 파악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전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충고했다"고 입을 모았다.

참석한 의원들은 간담회와 별도로 성명을 내고 "시·도민이 지키고 키워준 민주 개혁 세력의 받아들이, 더민주를 지지할 것을 선언한다"며 "분열하면 총선승리와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고 탈당과 분열이 더 지속되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진노와 비주류의 분열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도 아니고 야권 전체의 분열만 초래할 뿐"이라며 "문재인 대표와 현 지도부는 기록권을 내려놓고 김중연 선대위원장에게 약속한 당 대표 사퇴와 지도부 권한 이양을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바람이 주춤하면서 탈당이 확실시됐던 일부 광주·전남 의원들이 결행을 머뭇거리려는 기류도 감지된다.

거취 결정을 앞둔 의원들은 사실상 무소속 출마 입장을 밝힌 박지연 의원을 필두로 김영록·이계호·이윤석·박해자 의원 등 5명이다. 이윤석 의원은 "문재인 대표 사퇴가 기정사실화됐고 호남 민심이 광장

히 바뀌고 있는데 이럴 때는 신중해야 한다"며 "민심을 거역할 수는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더민주의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에 이어 오는 24일 광주에서 '더불어 콘퍼런스'를 열어 호남 민심을 자극할 예정이다.

이 행사는 더민주가 최근 영입한 외부 인사들을 한자리에 불러모아 세계적인 지식 강연 웹사이트인 TED(TED)를 본떠 짧은 강연 형식으로 진행된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표가 사퇴 결정 시점에 맞춰 광주를 방문해 호남을 향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더민주 측의 역습에 방점을 찍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권원기자 cki@kwangju.co.kr



진전 없는 '선거구획정'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왼쪽)와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정경회관에서 총선 선거구획정 처리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회동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의원회관 정경회관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이날 회동에는 야당이 불참, 비공개로 진행됐다. /연합뉴스

여야 선거구획정 회동 또 무산

野, 새누리 국회선진화법 개정 착수 반발 회동 거부

1월 임시국회 공전 상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8일 여야 원내 지도부를 불러 정경회관에서 총선 선거구 획정안의 1월 임시국회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야당 측의 불참으로 회동이 무산됐다.

새누리당이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를 단독 소집해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의 개정 절차를 진행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강력 반발하며 정 의장이 주선한 회동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여야 대치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지난 9일 소집된 1월 임시국회는 본회의는 물론 상임위조차 제대로 가동되지 못한 채 공전을 계속하고 있다.

정 의장이 주선한 이날 회동에는 애초 새누리당 원유철,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와 양당 김정훈·이목희 정책위의장, 조원진·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야당이 불참을 선언하자 원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만 참석한 채 비공개로 진행됐다.

약 1시간의 비공개 회동이 끝난 뒤 정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야당 측이 오지 않기로 해서 내가 주선하려던 회동은 끝났다(무산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종걸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새누리당의 운영위 단독 소집을 '도발 행위'로 규정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의 회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공개 회동을 하는 중에 이종걸 원내대표와 3차례나 통화하고 오시라고 했다"면서 "당면한 문제인 정경회법안과 선거구 획정을 빨리(처리)하자고 했는데

안 와서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어 운영위 단독 소집에 대해 "이미 지난해에 통보된 것인데 야당 의원과 보좌관이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쪽'으로 진행된 회동에서는 의제였던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의 1월 임시국회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별달리 진전된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새누리당 측은 정 의장에게 정경회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한편 국회선진화법 무력화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새누리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하는 등 국회선진화법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특히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한 직후 법안을 운영위와 법사위 논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 올리기로 결정한 '부결' 절차를 밟았다.

이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법안에 대해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고 규정한 국회법 87조를 활용해 국회법 개정안을 관철하려는 조치다.

이로써 새누리당은 오는 25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할 수 있는 1차 관문을 넘은 셈이다.

이제 국회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 여부는 정 의장의 선택으로 넘어갔다. 일단, 정 의장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4·13 총선 현장

"총선 필승...강한 야당으로 거듭나겠다"

김영집 국민의회의 광주시장위원장



김영집 국민의회의 광주시장위원장은 18일 4·13 총선에서 새정치, 새인물로 반드시 승리하는 강한 야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된 뒤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더니, 이번엔 안철수 의원 측이 이승만 전 대통령을 국부로 칭송했

다"며 "허약한(당의) 가치로는 정권을 되찾을 수 없다. 국민의회의 강한 야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또 "여당에 조롱받는 광주, 야당에 도구로 이용당하는 광주가 아니라 정통 야당의 본산, 민주화와 새정치의 중심 광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고 말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모델 활용을"

임한필 광주 광산 갑 예비후보



임한필 광주시 광산 갑 예비후보는 18일 현장밀착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연합체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등 지역사회 보장 증진에 관한 주요 사업을 심의·자문하는 민관협력기구이다.

광산구 21개 동 주민센터 중 18개 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발대식에 참가한 그는 "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지역형 복지모델로 만들어 적극 활용, 지역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광주지법 송기석 전 부장판사 영입 기자회견에서 송 전 판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송기석 전 광주지법 판사 영입

'국민의당'이 18일 송기석 전 광주지법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25기)를 영입했다. 송 전 부장판사는 총선에서 광주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송 전 판사의 영입 사실을 공개했다.

송 전 판사는 이 자리에서 "재판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고 혁신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과 정치"는 전혀 다른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 사회의 갈등을 공정한 잣대로 해결한다는 점에선 같은 작용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나치게 보수적인 정당과, 어떤

게 보면 '낡은 진보'를 표방하는 정당에 대해 희망을 느끼지 못하는 국민 중 한 사람"이라며 "미래에 대한 대담한 변화를 구하는 정당에서 변화의 물결이 우리나라 구석구석까지 미칠 수 있도록 조그만 역할이라도 다해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광주 지역에서 20여년간 법관으로 봉사했다. 제가 생활한 지역에서 정치를 통해 뭔가 변화시키고 봉사하는 길을 찾고 있다"며 광주지역 출마 의사를 시사했다.

고층 출신인 송 전 부장판사는 1996년 광주지법에서 판사로 임관돼 광주지법 목포지원 가정지원과 광주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체육관련시설 2층 상가매매

(에어로빅, 헬스, 당구장, 체육관, 기타) 넓은주차장 용봉, 문흥지구 중심상가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2칸)
- 매 7억5천만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전남대 부근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 성업중 직영하실분 환영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급매 조정가)

복성중 28회 친구 찾기

- 상균이, 호승이, 재준이와 28회 졸업생 690명을 찾습니다.
- 복성28회를 아시면 신고해주세요 (매월 28일 정례모임중)

김행곤(복성28회 살림꾼) 010-3379-2209

www.솔향기맑은터.com

솔향기맑은터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 전문점 예약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베는날 화, 목, 토, 일
- ▶ 불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2인승, 25인승 무료이용
-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맛의향연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행복한 모임을 위한 돼지갈비전문점으로 바뀝니다. 돼지갈비, 매콤갈비찜정식, 딱갈비정식, 솔향기정식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50% 할인
- ▶ 주말 및 연말연시 모임은 사전예약으로 차질없게

사전예약시 ▶ 12인승, 25인승 차량 무료운행 / 컨퍼런스룸, 족구장 무료이용 가능